

만남

05

2019

통권 544호

특 집 |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

4월 19일(금) 저녁 성금요일 예배 때 문화선교부가 준비한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 공연이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인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했다. 사진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세마포로 수습하는 장면. (관련기사 50면)

사진 이상현 기자

표지설명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다. 유치부 어린이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가정의 달 5월호 표지에 담았다.

사진 이상현 기자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다음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 김운성 02

특집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음(異音): 서로의 소리를 듣다 | 백성우 04

영락에서 만난 믿음의 견우직녀 | 정원일 08

자녀의 달란트를 막지 말라 | 김세연 10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전도가 어렵습니까? | 김상현 12

와서 보라 하시니 | 민선진 16

다음세대

이제는 필(必)환경 시대 | 이준영 19

워십댄스에서 바울성경반까지 | 김소현 22

땅끝까지 이르러

러시아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현재호 24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반석 | 김경옥 27

영락의 울타리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최혜진 28

37년 만의 새 찬양대 | 이영문 30

야곱의 우물가

어머니의 성경 암송 | 조미정 32

우리 가족의 기도 | 이순재 34

5대째 신앙유산 이어갑니다 | 이인수 35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 함정숙 38

봉사와섬김

어린 자녀를 위한 건강상식 | 임대현 40

문화광장

5월의 영락문화공간 43

5월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화를 | 박선이 44

하나님의 선물 | 이해연 46

요한, 예수 가까이 머문 사람 | 박정관 48

교회소식

부활주일·전교인 전도주일 49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외 51

새가족 환영 56

편집장 레터 5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5월 목회력 60

2019년 5월호 통권 544호

발 행 2019. 5.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김 운 성 위임목사

다음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은 신명기입니다. 영어에서는 신명기를 <Deuteronomy>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규범’이란 뜻입니다. 그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다시 선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두 번째로 선포된 곳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1장 5절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

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아주 어렸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된 열두 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보냈고, 사십 일의 정탐기간이 끝난 후 돌아온 이들 중 열 명은 하나님을 불신양하면서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비록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설득했으나, 백성들은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할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한 보응은 무거웠습니다. 정탐한 기간이 사십 일이었는데,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하여 출애

굽 1세대는 사십 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서운 광야 사십 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백성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잘 성장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들은 이들은 바로 아들,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가나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6~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렐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젊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세대가 얻고자 염원했으나 얻지 못한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에 의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이 맥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가나안을 자녀세대가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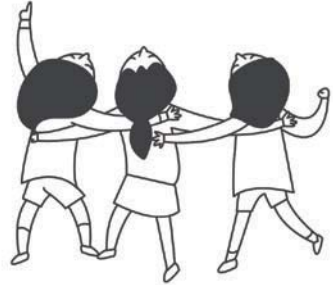
자녀세대는 아직 어렵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그것도 직접 경험은 매우 적고, 배워서 알게 된 간접경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세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미래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세대를 사랑해야 마땅하고, 축복하여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들에게 기대의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떠든다고 야단만 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행입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노인처럼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병입니다. 가장 아이다운 아이, 가장 청소년다운 청소년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른세대가 그 계획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2019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음세대를 사랑과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만남**

이음(異音: 서로의 소리를 듣다)

- 예수 생명으로 이어져 자라나는 우리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소리를 듣고 이어지는 생명

기독교는 어찌 보면 소리의 종교입니다.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경청하는 신앙이지요. 하여, 소리를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소리는 말씀의 소리요, 서로의 마음을 듣는 대화의 소리요, 나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신앙과 기독교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① 가장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생명의 소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는 일차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② 또한 중요한 것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단절이 일어납니다. 죄의 본질적 모습도 단절입니다. 창세기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간의 단절,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간의 단절 등입니다. 반면, 예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된 우리는 다시 '이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이 이어진 자들은 '지속적으로 서로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며, 서로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찾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게 교육하는 자들입니다.

③ 나아가 우리의 소리(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뢰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과 이어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은 이어져야 자라납니다

생명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 이어져야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과 연결되어 새싹이 움트고, 아기새는 어미새의 품에 이어져 자라나며, 나뭇가지는 본줄기와 어어져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는 부모와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어져야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친구와 선배, 신앙공동체와 이어질 때



신앙과 인격과 삶이 자라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 이어져 영혼이 자라나고, 부모와 친구와 신앙의 공동체와 건강하게 이어질 때 그 영혼과 육신과 인격이라는 총체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이어진 신앙교육'

기독교신앙교육 전문가 카라 포웰(K. Powell) 교수는 '세대적으로 끊어진 교회 교육'의 심각성에 주목합니다. 같은 세대의 이야기만 듣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세대의 시간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다가올 시간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여 결국 교회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도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진행된 신앙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한 포웰 교수는 1:5 비율의 교육환경(교사 1명당 학생 5명)이 아니라 5:1



의 비율(아이 1명당 당 5명의 어른: 부모, 교사, 선배 등)을 오히려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교회의 신앙교육이 유기적인 공동체적 교육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영락교회는 올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어진 생명’이 되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도심교회라는 한계 속에서도 공동체와 세대들이 서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을 추구하며 그렇게 ‘이어진 신앙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연계, 어른 신앙공동체와 자녀 신앙공동체의 연계, 교사와 교사 간의 연계, 어른과 청년의 연계, 신앙과 진로/일터의 연계를 이루고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시간, 세대,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교육이 되고자 합니다.

5월 원포인트 교육사역

① 하나의 말씀 사역

‘하나의 소리, 하나의 말씀’을 온 성도와 가족과 세대가 함께 듣는 말씀의 원포인트를 실시합니다. 대예배 말씀과 부서 예배 말씀, 반별 성공공부 말씀, 주중 가정예배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어져 함께 그 말씀(소리)을 듣게 됩니다.





② 공동체가 이어지는 사역

하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성도, 가족, 세대 간에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가정예배의 자리를 통해, 특히 전세대예배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아들을 위한 가족잔치와 유아세례, 광장에서 펼쳐지는 서로의 소리를 듣는 ‘이음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③ 교육 공동체 세우기

‘브라보 영락 쌤’ 시간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며, 부서 찬양대가 대예배 봉헌송을 통해 섬기는 기회를 갖고, 찬양예배는 교육부 연합찬양대가 함께 드리는 교육주일 특별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간에는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영락청년 선교비전대회가 있습니다.

주 일	말씀 원포인트	주요사역
5월 5일 (어린이주일)	디모데후서 1:1~6 “아들이라 부르기 위하여”	•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 5월 4일(토) • 유아세례 : 5월 5일(주) 찬양예배 시
12일 (어린이주일)	사무엘하 1장:17~27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 가족주일 전세대 예배 : 2,3,4부 예배 • 광장행사 : ‘이음’ (異音): 서로의 소리를 듣다
19일 (교육주일)	시편 119:9 “자신보다 큰 것”	• 교육주일 행사 : 브라보 영락 쌤, 다음세대기도회 특별찬양예배 (교육부연합성가대)
26일	열왕기하 4:1~7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 영락청년 선교비전 : 5월 24일(금)~26일(주일)

영락에서 만난 믿음의 권우직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린 시절 매주 토요일은 주일학교 찬양대 연습
을 하기 위해 지하철 타고 영락교회 가는 날이었습
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
곤 했는데, 잘 외워지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
습니다. 1990년대 당시 찬양대는 악보 없이 찬양
단에 섰는데 그 많은 가사를 외워서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기특하다 여겨집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 스며든 신앙은 영락교회에서
만나고 한경직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신 부모님 덕
이 컸습니다. 주일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칭
얼대던 저와 동생을 승용차 뒷좌석에 눕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교회로 데리고 가시던



정원일 성도
성동·광진교구



부모님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부모님 덕에
저는 항상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레 성장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대
학원 시절을 지나며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1:1로 다시 만난 주님

대학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석사 생활이 시작되
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낮이 바뀌는 반도체 실험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
친 상태에서 예배 참석도 쉽지 않음을 처음 깨달
았습니다. 저의 첫 영적 시험대였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제 의지로 주님을 찾는 것, 그 단련
을 이 시기에 겪으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저를 위해 예비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
는 주님께서 항상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 주셔
서 석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

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여호수아 1:9)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

결혼에 대해 별생각이 없던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동생이 먼저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을 보면서 저도 배우자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굳건해지면서 성격이 밝고, 여행을 좋아하며 현명한, 무엇보다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여성분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욕심쟁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저는 한국에 있는 여자 친구와 서로 기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방학 기간에 만난 그녀는 사랑스럽고 만날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입천장을 데기도 하고, 옷에 음식을 흘려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했던 여자 친구는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에 힘입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저는 그런 그녀와 가정을 꾸린다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여간 한국과 미국에서 견우와 직녀 같은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김운성 목사님의 주례 하에 2019년 3월 2일 영락교회 본당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3월 17일 4부 예배 중 목사님과 성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께서 두 팔 벌려 저희를 향해 축복해 주실 때 ‘믿음을 잘 이어가며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신혼생활의 첫걸음을 미국에서 떼게 된 저희는 지금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되고 막막한 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선한 계획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멋진 길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해주신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대를 이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배우자를 만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허락해주실 자녀들도 신앙으로 양육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받은 자로서 이웃과 사회에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저희의 첫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더욱 사랑으로 살라고 하신 주례사를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 두 팔 벌려 축복해주셨던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잘 살겠습니다. **안남**

부모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달란트를 막지 말라

김세연 집사
성동·광진교구
고등부 교사



격변하는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불안하다. 더하여 신앙인이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기쁨과 동시에 세속과 더불어 살 자녀에게 신앙이란 짐을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의지할 바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할 일은 자녀가 받은 달란트, 즉 재능을 발견해 그것을 꽃피움과 동시에 그것이 주께 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겨, 재능을 출세나 영화가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도록 지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성공은 그에 따르는 부상에 불과하다.

재능을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보는 방법이 좋다. 주의할 일은 ‘돈 들여보냈더니 피아노는 두 달 만에, 바둑은 한 달 만에, 댄스는 얼마 만에 그만두더라’ 식의 힐난이다. 자녀의 재능 발견에 그 정도는 투자이다. 영어, 수학학원에 보냈어도 돈은 들어간다. 필자도 두 아들이 학원가기 싫어 게으름을 피우면 화도 나고 장차 적성을 찾지 못할까 걱정도 된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 아들들에게도 아직 찾지 못한 달란트를 주셨다 믿고, 우리 가족이 속히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다른 문제는 재능을 발견했는데 부모의 기대와



자녀 졸업식에서 가족과 함께(왼쪽 두번째가 필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법조인이나 의사가 아닌 정도면 좋으련만 자녀가 바텐더나 프로게이머를 바란다면 평균적인 부모는 난감해한다. 그러나 미래는 변화한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 필자의 현 직업인 게임시나리오 작가란 직종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게임업계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부모가 재벌이 아닌데 재벌인 사람은 미래에셋증권 회장을 제외하고 전부 게임회사 소유주다. 좋은 말로 치장해서 IT업체다.

농부가 인구의 60% 넘게 차지하던 시절에도 보릿고개를 겪었다. 지금은 10%가 안 되지만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다. 대기업이 1개월만 공장을 돌리면, 대한민국인이 100년간 입어도 남는 의류를 쌓을 수 있다. 물건을 만드는 노동의 가치는 21세기에 들어서 희미해졌다. 운동선수, 가수, 배우는 있으나없으나 인류 생존에 지장이 없으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농부 같은 직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졌다. 100년

전만 해도 농구선수나 연예인의 사회적 가치는 높지 않았다. 이 경향성은 점점 강해져 이미 ‘노동은 로봇에게 인간은 운동만!’이라는 표어가 등장했고, 이 표어를 알려줬을 때 아들들은 “영화처럼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낙원이 이루어지겠네요.”라고 말했다. 이미 다른 눈을 지닌 세대인 것이다. 미래의 사회적 필요는 생존적 필요와는 무관한 곳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달란트를 막는 일은 어리석다. 따라서 필자는 아들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당당히 말하는 가정환경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발견한 달란트를 부모 눈치를 보아 말하기 주저한다면, 외려 그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내 아들이 자신의 길을 정하지 않았기에 하는, 속 편한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다가올 아들의 선택의 날에 세상 법과 주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을 지지함이 나의 신앙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 **만남**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하고 주님께 인도를 맡기세요



김상현 목사
인천 부광교회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말라기는 “하나님이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새로운 애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끝은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화난다는 얘기고, 신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속상해하실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으로 인해 속상하거나 행복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영락교회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영락교회는 한국 교회의 장자입니다. 저도 광화문 정부청사 뒤에 있는 종교교회라는 장자를 자부하는 교회에서 자라서 형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 상동이라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참 감사하게도 시골에서 자랐어도 형제들 모두 서울에 와서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형님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거든요. 광산촌에서 고생하는 부모님처럼 살 수 없다고 마음먹은 형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광고등학교 수석을 했습니다. 방학 때면 집에 와서 동생들 성적표를 확인하여 마음에 안 들면 형제 우애를 주먹에 담아 아낌없이 켜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라고요. 둘째 형이 그 우애를 받아들이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 서울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 부흥의 가능성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인데,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셨을까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나지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때 그런 음성이 들렸다거나 또는 부활할 때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조금 다른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문제나 내 저주를 다 끊어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도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 되거나 권찰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 가운데 장남 내지는 장녀가 되었다는 얘지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고아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드는 등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가지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한 가지는 복음전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착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가 쉬울까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인도를 생각합니다. 인도는 어려워요. 전도는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힘들어 했습니다. 스테반은 인도를 못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전도’라는 단어와 ‘인도’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인도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내가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인도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교인 전도주일에 전교인 힘을 다해 전도합시다. ‘전교인 인도주일’하면 엄청 힘들 겁니다. ‘전교인 인도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전교인 전도주일’이라고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도는 신경 안 쓰고 전도만 할 테

니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둘째, 인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인도할 사람이 정말 많아요.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지금 들에 가면 달래, 냉이, 씀바귀, 더덕, 두릅.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등산객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에 1만4,799명, 2011년에 1만5,681명, 2012년에 1만4,160명, 2014년에 1만4,400명, 2013년에 1만3,800명. 매년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자살 시도가 30만 명이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답니다. 마음 아프답니다. 너무 답답하답니다. 누군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봐 주는 교인은 별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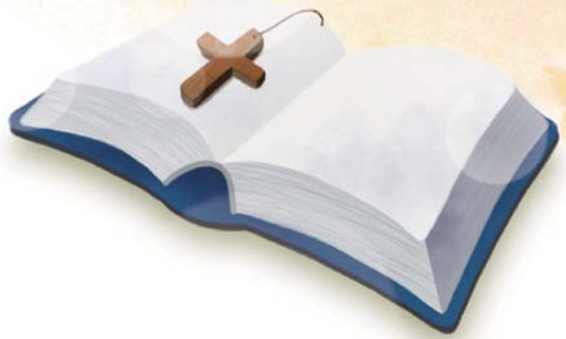
자진신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자진신자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진해서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교회에 왔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서성이고 있는데 저와 아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를 몰라봐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를 몰라본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저희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이 아니시군요” 했더니 “어떻게 아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죠” 했더니 보면 알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보면 알아요.”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마음이 답답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평에 공원도 있고, 좋은 데가 많은데 왜 교회 마당에 왔을까요. 그분이 통닭집을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남편과도 자주 싸우게 되고 속상한데도 갈 곳이 없어서 교회 마당에 왔답니다. 다음 주일 날 교회 나오라고 권유하며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일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언니, 그 다음 주에는 동생, 어머니, 이렇게 매주 한 분씩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만 관심가지면 이렇게 교회에 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전념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하기만 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명을 품고 나갈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전도만 하면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접 찾으러 다니십시오. 집

“안풀린다고요? ‘아직’ 안풀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실행됩니다.”



에 앉아만 있으면 평생 한 영혼도 못 건집니다. 돌아다니기 힘들면 교회에서 낫선 분을 만나면 처음 오셨냐고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1년에 약 40명을 등록시키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는 분이예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 오는 분을 알아보고 등록을 시킵니다.

셋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저는 100% 전도에 성공합니다. 못 믿으신다면, 앞에 제가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잘 안 돼요” 이 말은 인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추수를 해야 성공이잖아요. 근데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온 그날에 추수를 할 수 있나요? 씨를 뿌린 그날에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만 성공하면 됩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풀다가 안 풀리면 “아빠, 안 풀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풀릴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목회하다보면 안 풀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안 풀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일 뿐 실패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이번 주일만이 아닌, 4월 21일까지

만이 아닌, 평생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성공의 과정을 거쳐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을 바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복음은 불 속에 넣어도 살아요. 복음은 도끼로 난도질해도 살아요. 복음은 톱밥과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나요. 복음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갚으셔야죠. 갚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인도라는 말에 부담 갖지 말고 자랑은 하시자고요. 좋은 경험이 있으면 주변에 자꾸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얘기’, ‘예수 복음 얘기’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부흥의 정도를 처음 보여준 영락교회가 지금도 그 길에서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

와서 보라 하시니

- 남성 직장인 통독반 소그룹 1기 후기



민선진 집사
종로·성북교구

아직은 해가 뜨지 않은 미명의 새벽 6시20분.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빠져 나와 집 앞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실행하던 몇 달 전과는 달리, 이제는 카톡을 열어 ‘남직통반♥’ 방을 열고 워드 파일로 정리해두었던 그날 차수의 ‘아침공지’ ‘통통나침반’ 그리고 성경오디오 파일을 카톡 방으로 복사해 넣습니다. 늦은 밤 통독 완료를 보고하신 분, 그 새벽에 읽으신 분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흐뭇하게 아빠미소 지으며 마을버스에 오릅니다.

몇 달 전, 정확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바뀐 저의 아침 모습입니다.

“뭐, 90일이라고?!” 아내의 제안에, 1년에 성경1독도 근근히 겨우겨우 하다 못 하다가 반복한 최근 몇 년이었는데, 90일 통독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1년 1독도 충분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흘려 넘겼던 제가 ‘90일 통큰통독’의 저자 주해홍 목사님 강의영상을 받아 보았습니다. “왜 90일인가?”하는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끝냈을 때 창세기 1장이 여전히 기억나는 시간, 그것이 90일입니다. 성경 한 장면 한 장면의 묵상도 중

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70일도 해보고 120일도 해봤는데 본인은 90일이 적당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1년 1독 했을 때를 돌아쳐보면 요한계시록을 마치며 환호할 때 이미 레위기, 민수기 정도는 깔끔하게 잊어버렸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90일에 설득당한 저는 오디오 파일도 다운받아서 보았습니다. 매일 40분 전후의 길이였고, 읽을 책의 하루 분량은 그림과 도표가 많은 5~10페이지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출퇴근 편도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1시간30분에 이르는 저에게는 안 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전부 성경통독에만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년 1독에는 하루 4~5장을 15분 정도만 읽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획득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 웹서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간혹 책도 볼 수 있는 즐거운 개인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같은 구역식구이

자 여직통반 전 기수인 류화정 집사께서 두껍고 비싼(!) '90일 통큰통독' 책을 선물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바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와 선교부의 경계 없이 남성 직장인 통독반 1기가 시작되었고, 첫 모임에는 아내와 지인의 꼬드김에 끌려나온 불쌍한 어린양 8명(강신웅, 김상래, 류재원, 민선진, 이상현, 이승우, 이정현, 이한별)이 모였습니다. 가장 늦게 온 제가 리더를, 제 바로 앞에 오신 강신웅 집사께서 부리더를 맡기로 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여성직통반 리더이신 조은하 집사께서 모든 자료는 물론, 진행 방법부터 소그룹의 세세한 운영에 이르기까지 헌

신적으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남성직통반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수차례 힘들게 받았던 아브라함 덕에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의 열매를 즐겁게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아내들을 사용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한 남직통반 1기가 어느새 75일 차를 지났습니다. 그 주일 첫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30일 차부터 가지려던 티타임이었음에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모두 모이기 어렵다는 핑계로 뒤늦게 가진 것은 소그룹으로서 반성할 점이네요.



티타임 그리고 남자들의 수다



이승우 집사 : “힘들어요~ (진심이 느껴져서 모두들 폭소~~) 오디오 없이 하루 1시간30분 정도 통독을 하다 보니 힘들지만, 성취감은 무척 높았습니다. 훨씬 넓은 목상이 가능하게 된 것도 무척 기쁘고요.”

이정현 집사 : “저도 역시 일단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성경이 삶의 전반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하루 내내 묵상하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이한별 성도 : “저는 출퇴근 시간과 장거리 출장 때 운전하면서 오디오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상 속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류재원 집사 : “아침을 성경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기쁩니다. 전에는 운전하면서 음악을 주로 들었는데, 지금은 출퇴근 두 번 오디오 성경을 듣고, 중간 중간 교재로 배경이해를 더하면 성경전반의 이해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이상현 집사 : “저는 이동 중일 때보다는 조용히 제가 편한 자리에 앉아 몰아서 읽고 묵상하는 편이고, 마음으로 새기라는 말씀처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성경주석 앱을 참고합니다.”

민선진 집사 : “교재의 지도와 도표를 통해 역사의 흐름으로 사건들의 순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참으로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출퇴근 시간 덕분에 통독은 어렵지 않았는데, 방학 후에 다시 통독하는 습관으로 되돌리기가 매번 어려웠어요.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신웅 집사 : “정말 혼자 했더라면 힘들고 실패할 수 있었을 텐데, 카톡에 올라오는 완료 메시지들에 더욱 도전받게 되고 결국 완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 나눔은 잘 못했지만요. 그것이 통독 소그룹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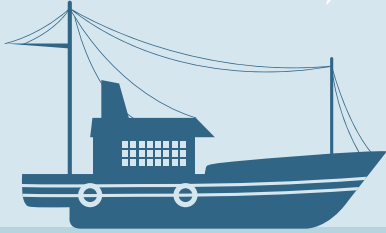
김상래 집사 :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고 기초적인 것들은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알고 있는 저의 작은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성경을 시간적 흐름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이렇게 놀랍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힘든 시간이지만 너무 유익했고, 또 의외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너무도 성경에 무지하다는 자괴와 이제 그 구령을 빠져나오는 한 발을 디뎠다는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남직통반 1기가 완료됩니다. 다들 힘들다고 했지만 한 명도 이견 없이 2기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몇 분은 세 번쯤은 해야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혹시 2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긴말 앉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요 1:46)

마지막으로, 남직통반의 시작을 도와주신 여직통반에 감사드리며, 초기에 방향성 가이드 및 기도로 중보해주신 김웅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에 계획하시고 도움 주신 성령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남**



이제는 필(必)환경 시대



이제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했다. 예전에는 하면 좋은 '친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폭염, 폭한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기업들의 친환경 캠페인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플라스틱 지구



현재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재활용 플라스틱 분리수거 대란이 벌어지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달하고 이 중 80% 이상은 그냥 버려지고 있으며 이 중 매년 1200만 톤은 바다로 흘러간다.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계속해서 바다로 버려지는 셈이다. 바다로 흘러들어난 플라스틱은 떠돌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15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플라스틱 섬을 만들었다. 이 섬은 '태평양 대쓰레기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으로 불린다.



이준영 성도
노원교구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소비자학 교수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셀 수 없이 많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삼키거나 조각에 의해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빨대가 콧구멍에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위협은 비단 동물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재 바다에는 약 5조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아주 작은 플랑



제로 마켓인
독일 오리지널 언패어팩트(unverpackt)
독일어로 '포장되지 않은'이라는 뜻이다.

사진출처 <https://www.smart-magazine.com/local-secrets-milan-carolina-molossi/>

크톤의 몸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며 먹이 사슬에 의해 물고기에 축적되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는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 우리가 파괴한 자연환경은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형국이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다. 말 그대로 생활 중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이다. 이 캠페인에 앞장서는 로렌 싱어라는 환경 운동가는 일상에서 배출되어 3년 동안 모은 쓰레기를 작은 유리병 하나에 다

넣을 수 있다며 사진을 SNS에 올린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일명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이다. 재활용 이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유통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제로 마켓(Zero market)'이다. 독일에서는 포장 없는 슈퍼마켓인 '오리지널 언패어팩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포장지나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점 매장이 등장했다. 원하는 채소나 곡물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개인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제 기업들도 플라스틱을 대신할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다. 플라스틱 대신해 목재 펄프, 버섯, 우유, 미역 등 자연 원료에서 추출한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패션도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패스트패션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상징처럼 비판받아왔다. 이제 패션산업도 환경을 생각하는 이른바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 키워드가 주목받는다. 소재부터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

우리 스스로 친환경 의식 고취와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른바 ‘에코 페어런팅(Eco Parenting)’이다.



된 패션 제품을 지칭한다. 물 등의 자원낭비가 심한 청바지
 업계도 이제는 물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한 워싱 가공 기법
 을 통해 친환경 제조 공정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스포츠 브랜드는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
 용하여 운동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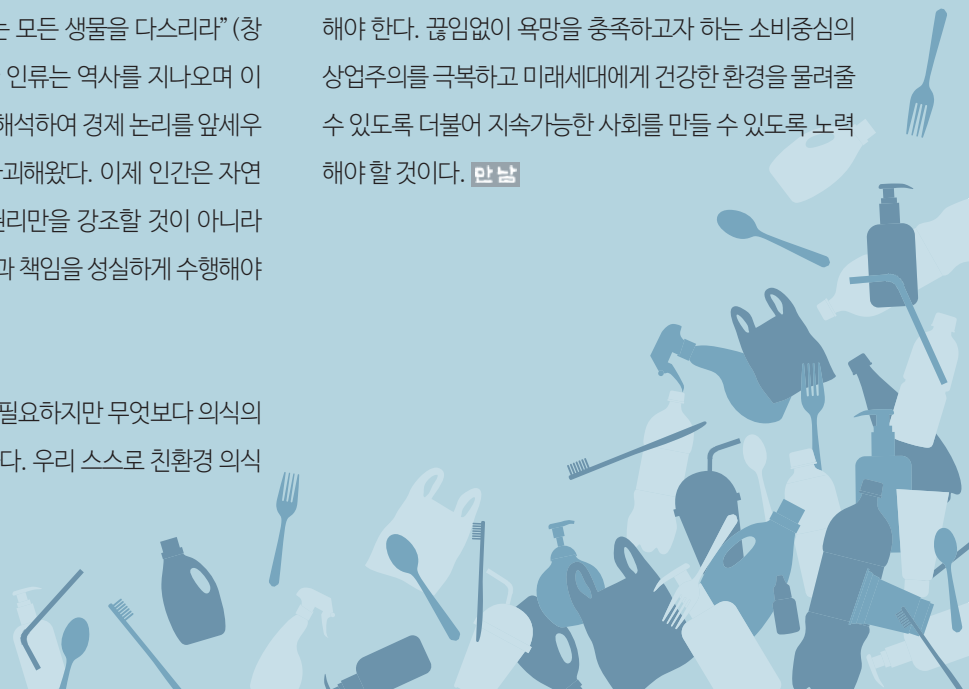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친환경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존하
 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류는 역사를 지나오며 이
 성경구절을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여 경제 논리를 앞세우
 며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왔다. 이제 인간은 자연
 의 지배자로서의 무조건적 권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환경보호의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과 실제적 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스스로 친환경 의식

고취와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환
 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른바 ‘에코 페어런팅(Eco Parenting)’이다.
 유년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 의식을 체화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환경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연환경을 파괴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
 니라 인간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동반자로서 인식
 해야 한다.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소비중심의
 상업주의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만남**



워십댄스에서 바울성경반까지 특활팀 신나요!



고등부 주보에는 ‘#영락고등부’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렇게 특정 키워드 앞에 #을 붙인 것을 해시태그라고 부르는데, SNS 상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게시물들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붙은 단어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영락고등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공동체라는 소속감은 영락고등부 학생 개개인을 한곳으로 모이게 한다. 외모부터 성향까지 모든 면에서 다양한 우리가 서로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등부는 개개인 사이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도록 고등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2019년 고등부에서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제자’를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 기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드림홀에서 드린다. 고등부에는 학생들이 자원하여 활동하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심에 학생회가 있다. 예배에 출석하는 200명의 학생을 환영하며 주보를 나누어 주고,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136대 학생회 ‘Reborn’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Reborn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고등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 뜻대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회 외에도 예배를 섬기는 학생들이 많다. 특활부서 가운데 미디어반, 호산나반, 워십



김소현
고등부 학생회장



고등부 예배를 섬기는 영고찬(영락 고등부 찬양대)

댄스반, 영고찬(영락 고등부 찬양대), 이삭줍기반이 예배를 섬긴다. 미디어반은 예배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이들 사진으로 사진전을 연다. 사진 촬영뿐 아니라 고등부에 필요한 각종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호산나반과 워십댄스반은 토요일에 모여 찬양, 악기 연주, 워십을 연습하고 주일 예배 때 무대에 선다. 두 특활부서 덕분에 기쁨의 찬양 시간이 늘 더 은혜롭고 즐거워진다. 영고찬도 토요일에 모여 연습하고, 설교 전 찬양과 설교 후 봉헌 시간에도 봉헌 찬송을 담당한다. 헌금을 모으는 역할은 이삭줍기반에서 맡고 있다. 이삭줍기반은 2주에 한 번씩 영락애니아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특활부서가 있는가 하면, 문화연구반, 바울성경반, 연극반, 학생기자반 등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활부서도 있다. 문화연구반은 문화 체험을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으며 진로를 탐색해보는 부서이다. 남다른 비전을 찾는 학생들에게 안정 맞춤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바울

성경반은 요즘 문화연구반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연극반에서는 직접 쓴 각본으로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등 주일에 무대에 선다. 음향과 연출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맡아서 진행하는 연극반은 완성도 높은 연극으로 매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기자반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취재할 곳을 정해서 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직접 작성한 기사를 '애플'지에 실는다. '애플' 편집을 맡는 만큼, 글 쓰는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부서이다.

이들 9개의 특활 부서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활 부서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 수요미식회, 제자훈련, 비전트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시간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로 이어진다. 연결을 통해 생긴 소속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해시태그, 그리고 #영락고등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고등부는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만남**

즈드라-스뜨부이쨌! 러시아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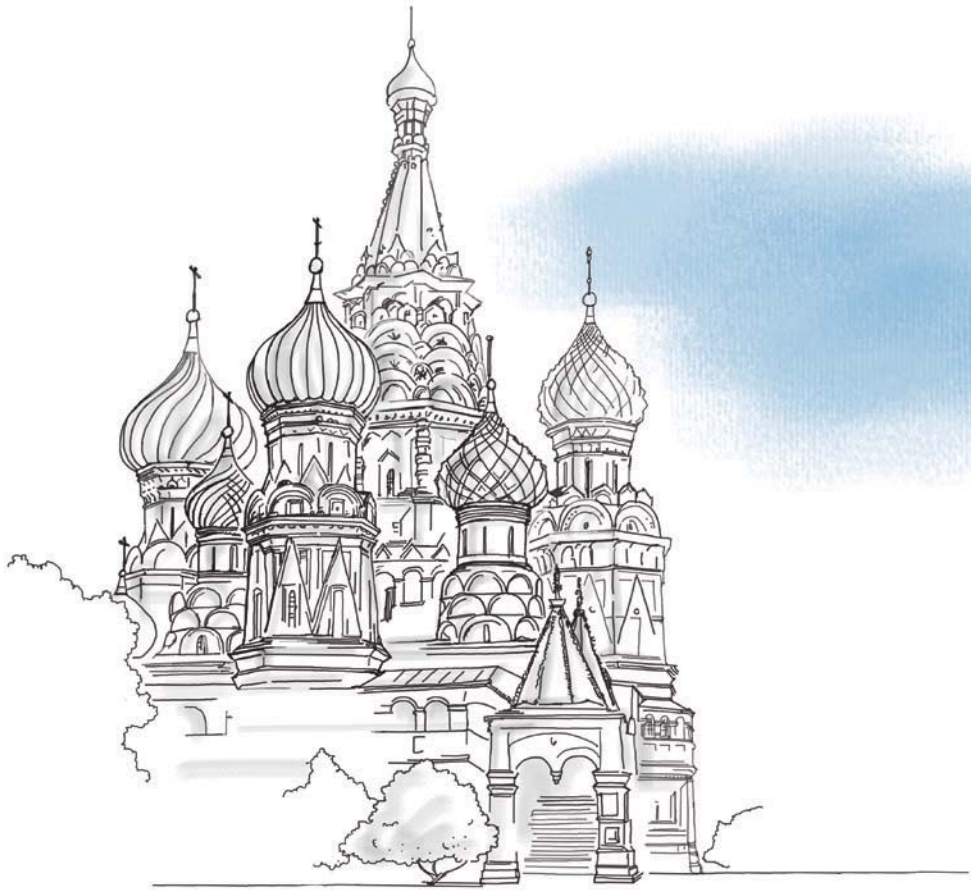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봉사관 501호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모여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외국인 예배는 선교부(부장 김순미 장로)에 속해 있고, 중국, 네팔, 몽골 등은 그 나라 출신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러시아어 예배는 2019년부터 한국인 김지용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차안톤이 통역을 담당하며 저는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호 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러시아어 예배 팀장

외모는 한국, 국적은 러시아

러시아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태어난 고려인 3,4세대입니다. 리자, 마리나, 마리나 어머니 니나, 나다사, 이글, 올가, 올가의 아들 바짐, 엘레나, 레나, 부부인 싸샤와 알뛰르 그리고 아들 한다윗, 아샤, 스대다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험난한 역사로 인하여 이방인이 되어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다가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분들입니다.



안톤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손잡고 함께 러시아어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새 청년이 되어 연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톤의 성장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분들의 정착과 신앙에 도움을 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2004년 10월 1일 러시아어 예배가 창립 될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고려인 출신 최류바 성도님을 비롯해, 예배 중 통역을 하는 최류바 성도님의 아들 차안톤, 유미화 책임권사님 그리고 영락의 청년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빵으로 식탁교제와 토요 성경공부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류바 성도님은 매주 다른 빵과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오셔서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예배 후의 교제는 중요한 친교도 되고, 나눔도 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도 됩니다. 늘 간식을 챙겨주시는 임연희 권사님과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구서현 성도, 우성진 · 김지영 부부, 러시아 찬양을 이끄는 안동현, 간식 준비 등 스텝으로 섬기는 임소희, 안수정 등 6명의 청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를 하고 있어, 예배와 친교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성경공부를 합니다. 박성호 집사님이 자신의 사무실을 성경공부방으로 제공해주셔서 러시아어 성경공부방으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감동으로 협력하여 러시아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김지용 전도사님과 성도들은 한국에 나와 있는 러시아 분들을 전도할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주 시간을 정해 러시아인들이 많이 찾으며, 교회에서도 가까운 동대문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 각 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어학당으로 가서 학원전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예배를 섬기는 영락의 청년들이 느낀 점

구서현: 러시아어 예배 공동체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아픈 역사로 인해 고려인 후손이 되신 분들입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같이 구 소련권 국가, 즉 러시아를 공용어로 썼던 국가의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분이 많아서 교회가 이분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영락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경우도 많고,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서리집사도 되지 못해 영락교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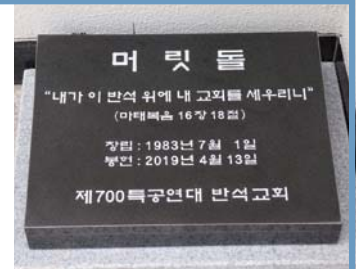
우성진·김지영 부부: 러시아어로 찬양을 할 때, 거의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영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안동현: 러시아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롭고 감사한 경험입니다. 또한 고향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그 신앙이 무척이나 깊고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겐 타국이고 기댈 곳이 없는 이곳 한국에서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헌신하는데, 국적 때문에 러시아 성도들이 집사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임소희: 교회예배 외에, 주중에 성도들이 만나서 성경공부를 한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어떠한 역할을 위해 필요한 훈련식 성경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내어 말씀 공부를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남**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반석이 되길

- 제2여전도회, 반석교회 헌당감사에배 드려



우리 교회 제2여전도회(회장 김희순 권사)와 지구촌 교회가 함께 후원한 반석교회의 새 예배당 헌당예배가 지난 4월 13일(토)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700 특공연대 영내에서 선교부장 김순미 장로를 비롯한 본 교회 선교부 임원진들과 여전도회 회원 50여 명, 진재혁 목사를 비롯한 지구촌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89년에 지어진 반석교회는 2017년 9월 옛 예배당을 철거하고 작년 6월 새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린 후 10여 개월의 공사 끝에 단층 150평 규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새 성전을 봉헌하게 됐다.

박희수 목사(반석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한 헌당예배는 김순미 장로의 기도, 김희순 권사의 성경봉독, 군종병 일동의 찬양과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목사의 설교, 헌금, 건축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해서 봉

헌시 교독, 본 교회 선교부 최승도 목사의 봉헌기도 후, 군인교회인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봉헌함을 선언하는 봉헌선언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헌당예배에서 상급 부대장인 수도군단장이 영락교회와 지구촌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했고, 군선교연합회는 700특공연대에게 기증서를 증정하는 식순도 함께 진행됐다. 부대장 김성무 육군대령은 반석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귀하게 관리하고 지휘관으로서 신앙 전력화에 힘쓰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선교부장 김순미 장로는 축사를 통해 “이 예배처소가 복음의 샘터이자 청년 선교의 황금어장으로서 신앙 전력화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반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남**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선교부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락교회에 오기 전 작은 교회를 섬기며 그곳에서 소그룹 셀 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서울로 이사했고 친정 어머니가 섬기고 계신 영락교회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스림 충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모임, 여전도회 모임, 전도폭발을 통해 신앙의 삶을 넓혀가고 있는 저에게 교구 목사님께서 구역장 직분을 권하셨습니다. 자라면서 친정어머니께 늘 들었던 말씀이나 예전 교회 목사님에게 훈련 받았던 것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라 여기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역 식구들과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비교적 젊은 전업 주부들이 같은 셀에 있어서 모임 시간이나 나누는 주제가 서로 잘 통했습니다. 서로 힘든 문제가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통해 위로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으로 잠도 오지 않았습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에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최혜진 집사
중구·용산교구 69구역장

저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구역장 일을 권유하신 목사님께서 자연스럽게 장로님을 통하여 구역 식구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어린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부터 너무 겁먹은 제가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구역 어르신들을 어렵게만 느꼈던 부분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조금씩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고 노권사님들과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고 조금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런 행동이 기특하셨는지 저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장로님께서도 인증샷도 찍어 보내 주시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못 뵙는 분도 계십니다. 사회적인 일이 바쁘셔서 자주 뵙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도 문자 보내드리면 답장해 주십니다. 가가호호 만남지를 전해 드리면서 얼굴을 뵙기도 합니다. 무섭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권사님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위로와 교훈을 얻으며,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한다” “고맙다” “나중에 맛있는 것 먹자”고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항상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할 일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그릇에 맞는 달란트 사역을 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만남**



37년 만의 새 찬양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오랜 숙원이던 수요일부 찬양대를 창단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당회와 특별히 음악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아찬양대는 1982년 5부 예배를 담당하는 베들레헴찬양대 창단 후 37년 만의 새 찬양대입니다. 수요일부 예배는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4년 4월13일 처음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여성 성도들로 찬양대가 세워지기도 했으나 이리저리한 이유로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정책당회에 수요일부 찬양대 신설을 요청한 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찬양대원 모집과 지휘자 초빙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지난 3월 6일 첫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아찬양대 창단을 계획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찬양대원 수는 6월까지 60여 명, 하반기에 80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예배부터 100명이 넘는 대원으로 찬양대석을 채워주셨고 모두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찬양대원을 모집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이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역시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어 창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시온, 베들레헴, 갈보리 등 주로 지명에서 따온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찬양의 의미를 갖는 '할렐루야'로 명명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위임 목사님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찬양대의 음악적인 지도를 담당하는 두 분을 소개드립니다. 지휘자 안정현 성도는 공모에 응한 16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 심사 및 지휘 오디션 등을 통하여 작년 12월 선정되었습니다. 안 지휘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유학 시절 지휘 전공으로 바꾸어 전문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호산나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갈보리찬양대 지휘를 맡아 수고하셨던 안재성 집사의 자제로 나중에 밝혀져 더욱 감사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성장한 음악가입니다. 박미라



이영문 안수집사
용인·화성교구
할렐루아찬양대 대장



수요1부 기도회를 섬기는 할렐루야찬양대(위)와 연습 모습(아래).

오르가니스트는 2011년부터 수요1부 예배 오르간 반주를 맡아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분 여성 음악가가 빛어내는 섬세하면서도 젊고 활기찬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것으로 모든 찬양대원들이 믿고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성도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클래식한 찬양보다는 실용음악화한 전자 음악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새롭게 찬양대를 설립, 발족시킨다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할렐루야찬양대의 여성 대원은 소프라노 50명, 알토 45명으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성대원은 테너 9명, 베이스 15명으로 숫자가 크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음악을 순조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남성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특히 자영업하시는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찬양대장으로서 대원들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모여 찬양하는 우리의 나이가 그리 젊지는 않지만 나이로 인해 용서받든, 그냥저냥 찬양해도 되는 그런 찬양대가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연습할 것이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할렐루야찬양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남**

어머니의 성경 암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이 말씀은 친정어머니께서 76세가 되던 해인 2018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처음으로 암송하셨던 12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 23일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홍성순 여사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을 떠난 당신의 친정 부모님 두 분을 절에 모시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장남인 큰오빠가 교회 등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6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쾌유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따뜻한 사랑과



조미정 집사
중구·용산교구

섬김 그리고 진심을 다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요지부동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등록을 거절해 온 부모님이 바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가끔 주일 낮 점심식사 대접을 핑계 삼아 교회 마당을 거닐어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누가 예배시간에 딴 짓을 하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졸고 있는 분은 없는지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새가족 등록 부스에 앉아 쉬고 계신 어머니 앞에서 새가족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순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가족 교육을 시작한 어머니의 입술로 “성경통독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직접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성경을 읽다보면 1~2시

간이 훌쩍 지나간다”고 고백하는 말씀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 책자를 통해 매일 첫 시간 큐티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앞장서게 하셔서 먼저 성경책과 찬송가를 찾아 놓고 식탁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 책자 부록에 수록된 ‘기도 제목 모음’을 보시고는 개인과 가정,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는 기도자로, 성경반 과제인 ‘매주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하시는 제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다보면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다가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 눈꺼풀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땐 편히 쉬기도 하고, 잠도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저의 대답에 어머니는 “넌 왜 언니랑 다르게 말하냐?”고 하시며 “언니는 ‘그럴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는 펼쳐 놓은 성경책을 바라보고는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행복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 성경 읽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한 후 눈을 뜨면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거듭 다시 성경을 읽는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지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과 싸우며 주



새가족 환영회에서 김운성 목사와 홍성순 성도.

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역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도구가 되길 소망할 뿐입니다.

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헌신할 때,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동역자들의 기도와 관심,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을 통해 일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뻐하게 될 줄을 고백합니다. 이번 전교인전도주일을 통해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만남**

우리 가족의 기도



이순재 권사
강북·도봉교구

결혼하고 1970년 즈음 상경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영락교회를 알게 되었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의 부모님은 이북 분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9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결혼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전에 큰 며느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3개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 기억이 있는데, 며느리의 암 진단 소식까지 듣게 되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남의 회사가 직원을 뽑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 며느리가 암까지 걸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그래도 아들 집에 가서 병수발을 들고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병이 났고, 하는 수 없이 서울로 다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 며느리는 제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미안해하면서, “어머님, 1년 동안 생활비도 못 보내 드렸는데 어떻게 사세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미안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의 회사 일을 돕는 며느리가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기도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릴레이 기도로 매주 목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본당에서 1시간 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구역장과 1여전도회 지회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너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러 본당에 앉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힘들었던 마음도 어느새 누그러집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며느리에게서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도와주신다”며 4월부터 다시 생활비를 보낼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대각성 기간 중에 응답을 주셔서 장남 사업도 접지 않고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 내외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집사와 권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여 더욱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더욱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영락 안에서 5대째 신앙유산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온가족이 신앙가져

저는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인 아버지(故 이철순 집사)와 신의주 출신 어머니(김상실 은퇴권사) 사이에서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0남매 중 장남이셨는데 1.4후퇴 때 혈혈단신 남한으로 넘어오셔서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결혼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의지로 아버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할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6.25 동란 시 남한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외갓집이 지금의 중구청 앞에 자리를 잡으면서 6남매인 어머니의 동기간 모두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둘째 이모님 등 지금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졌지만, 사촌 형제들까지 치면 꽤 많은 친척이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인수 안수집사
용인·화성교구

막내딸이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를 영접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금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는 어머니께서 자주 삼각산 기도원에 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등부 목사님이 기도원으로 인도

저는 한경직 목사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임마누엘찬양대와 소년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모태신앙인 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계기는 고등부 학생회 임원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당시 고등부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체험을 하게 해 주신다면서 영락기도원, 청계산기도원, 한얼산기도원 등으로 저희를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영락기도원에 기도처가 없다면서 금요일 저녁이면 삼과 곡괭이를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기저기에 기도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 고등부 친구들과 한얼산기도원에 올라가 방언을 받겠다고 열심을 내곤 하였는데 방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며 줄을 서서 기도원목사님께 검사를 받기도 했고요, 목사님의 ‘통과’ 소리에 어린 저로서는 방언의 은



2014년 5월 가족주일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봉헌송을 드렸다.

사를 받았다고 기뻐했던 기억도 생각합니다.

그 후, 기도원에 모이기만 하면 골방에 모여 기도를 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만큼 기도를 열심히 한 적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군대에서 성경책 지급 담당...주님의 예비하심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갈 즈음 저의 기도 제목은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였습니다. 사단 훈련소 교육 후 자대를 배치받아 처음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최고참이 종교가 뭐냐고 묻기에 기독교라 했더니 내무반원들 앞에서 기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목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앙이 없는 최고참 병에게도 엉터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는지 "너는 앞으로 일요일마다 꼭 교회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

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대 후 첫 번째 휴가를 마치고 돌아갔더니 부대 장 당번병으로 보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대 내 군중병과 함께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신병들의 자대 배치 시 신병들에게 성경책을 지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김영채 은퇴 장로님(삼일서적 사장)께 부탁드려 성경책을 공급받아 신병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일이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교만과 무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제대 후 삼성그룹에 입사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군대 3년 동안 공부한 적 없고 책을 본 것은 성경 일독한 것이 전부였는데, 제대 후 한 달 공부하고 입사하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제 자신의 능력으로 입사한 것인 양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만 교

회에 나가 봉사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을 주시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일 가까웠던 친구에게 보증 서 준 일이 잘못되어, 1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회와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의 새벽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였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에게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울어봤느냐? 너는 왜 너만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빨강안경선교회에서 아프리카 등지로 안경 보내요

이런저런 사업을 해봤지만 만족하지 못하던 차에 오래전부터 동생이 하고 있던 안경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생각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나?’ 후회하고 있을 즈음 해외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지영 안수집사님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물 파는 일, 화장실 지어주는 일, 안경 사역 등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안경 사역의 아주 일부분을 제가 맡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가칭 빨강안경선교회) 모임에서 안경 사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분의 도움으로 매년 2천 개 이상의 안경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은퇴 후 자녀 손주들의 신앙생활을 기도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 박성원권사는 구역장과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큰딸 현아는 저와 함께 임마누엘찬양대에서 찬양하며 고등부교사로 있습니다. 둘째 딸 윤아는 유아부교사로 봉사하다가 직장 관계로 쉬고 있고, 막내 아들 호준은 아직 고등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찬양대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부러워했는데, 큰 아이와 함께 찬양대석에 서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동생 내외와 남동생이 갈보리찬양대에 있고 조카들도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또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1980년대 초 소년부 교사 봉사시절,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함이 많음이라”(눅 7:47)



함정숙 권사
강동·송파교구

거룩한 부담감….

언제나 기도의 끝자락은 “오늘도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였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이렇게 소문도 없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주를 섬기는 사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예수님 생애 묵상수련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짧고 굵은 생애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지’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 와중에 나의 중심에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개인적, 가정

적으로 분주하지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까닭에 다 접어두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하는 고백이 있었다. 자랑스런 마음까지 들었다.

이번 예수님 생애 묵상수련은 4일 저녁 ‘여는 예배’로 시작, 5일 4번의 기도와 묵상, 영적 일기 쓰기, 6일 오전 2번의 기도와 폐회 예배로 구성되었다. 기도1부터 기도6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이적, 용서, 치유, 세족, 수난을 주제로 복음서 말씀 6개를 묵상하고 기도했다.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죄를 짓다 잡혀온 여인이 되어,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였

다. 둘째 날 기도3 시간, ‘용서하시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묵묵히 그 장면 안으로 빠져들었다. 그 정죄함 속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다. 수치와 모욕 속에서 어찌하다 머리를 들었을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 눈빛,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나의 죄는 너무 많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내가 주님 앞에 있었다. 그때 주님





의 용서하심이 있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도6 ‘섬기시는 주님’ 시간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묵상했다.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고 내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깨끗한 물로 내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납니까?” 차마 나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절로 느껴져 왔다.

나는 목사님을 어려워한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랴…. 그때 주님의 그 눈길, 그 말씀이 느껴졌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뵈었다. 나는 5대째 모태신앙인이다. 언뜻언뜻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이번처럼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간절하신 눈빛은 처음 보았다.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믿음의 새 장이 열렸다. ‘기도와 영적 일기’다.

둘째 날 기도1~4와 저녁 식사, 저녁 예배까지 모두 마치고 영적 일기 쓰기를 했다. 영적 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에 보다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영적 일기를 기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앎을 말하는 것이다. 권혁일 목사님께서 영적 일기의 묵상 체험을 권하셨다.

마지막 토요일 아침 식사를 끝내고 수련원 정원이 흰히 내다보이는 뜰에 차 한 잔을 들고 앉았다. 주님을 만난 기쁨, 비워진 내면의 공간, 말할 수 없이 차분해진 신심, 용서함 받은 죄, 사랑한다는 그 음성, 그 눈길, 주님과 영적 대화(아주 기초적인)를 나누었다. **만남**

■ 4월 예수님 생애 묵상 수련 일정

	4일(목)	5일(금)	6일(토)
7:00 am		기도 ①	기도 ⑤
8:00		아침식사	
9:00		기도 ②~③ / 면담	기도 ⑥ / 면담
11:00		11:40 중보기도	폐회 예배
12:00 pm		점심식사	
1:30		개인기도 ③~④ / 면담	삶의 자리로
5:30		저녁식사	
7:00		저녁예배	
8:00	안내 여는 예배	영적 일기 쓰기	

건강한 어린이를 위하여 힘쓸 일들

-어린 자녀를 위한 건강상식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① 개인위생을 잘 지키기

손, 발과 얼굴을 잘 씻고 양치질을 잘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소변과 대변을 잘 누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하면 전염성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비뇨기 질환을 막을 수 있으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병이 들기 전에 병원체(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버틸 수 있는 능동면역을 키워 줌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17종-BCG 피내용, B형 간염, DTaP, Td, Tdap, IPV, DTa-IPV, DTaP-IPV-hIB, hIB, 폐렴구균, MMR,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A형 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몇 가지 예방접종은 65세 어르신에게도 꼭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는 옛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르신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젊은이들도 예방접종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임대현 집사
성남·분당교구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② 밖에서 뛰어 놀기

요즈음 인기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유산균과 비타민D가 있다. 건강식품과 비타민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1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D의 하루 필요량을 우리 몸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성장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적당한 운동은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자연과 적당한 운동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줘서 자칫 깊게 빠지기 쉬운 인터넷과 휴대전화 게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다.

③ 적당한 영양 섭취하기 - 과량은 금물!

요즘 소아청소년과에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에 비만 환자들이 많아졌다.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9,000여 달러로 세계 26위였다. GDP가 3만 달러 근처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영양과잉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 어린이의 비만은 세포의 수와 크기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성인형 비만보다 더 심각하다.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섭취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2)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①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기

서양에서는 예의범절을 에티켓이라고 한다. 어른, 선배, 동료 친구 그리고 어린 동생들과 사회생활을 할 때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에 예의범절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며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생활한다. 그래서 사회의 생활양식인 언어와 규범을 배울 뿐 아니라 예의범절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

② 대화와 독서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하고, 또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정보전달을 받는 인터넷 강의나 요점 정리보다는 책을 읽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독서가 좋다. 입시 준비와 조기 교육이 대세라고 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린 시절 독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외치고 싶다.

③ 자원봉사하기

청소년이 되면 사회봉사를 1개 이상 하게 하자.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준다.

(3) 영적 건강을 위하여

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② 성경 공부하기

정통 유대인들은 13세에 성년식을 하는데 이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토라(모세오경)를 전수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토라를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예배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에 더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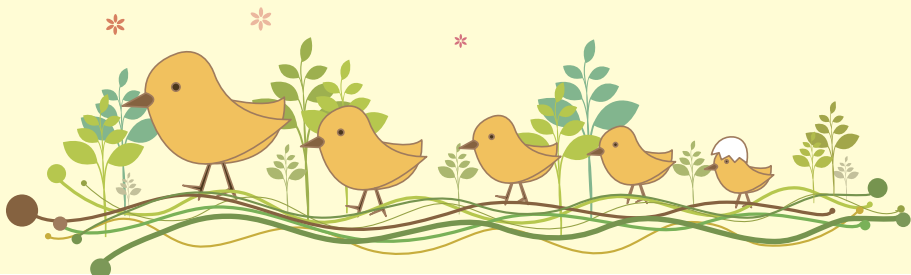
③ 기도 생활하기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찬송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

좋은 음식이라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육체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영적인 면들이 조화롭게 서로 어우러져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5월의 상영작



천국의 아이들 (Children of Heaven, 1997)

5일



감독 : 마지드 마지디

주연 : 레자 나지, 아미르 파로크 하스미안, 바하레 세디키

상영시간 : 1시간 27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오빠가 꼭 3등 상 받아올게!”

청정 남매가 선사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운동화 릴레이!

엄마 심부름을 갔던 초등학생 '알리'는 방금 수선한 여동생 '자라'의 하나뿐인 구두를 잃어버리고 만다. 오전반인 동생과 오후반인 오빠는 한 켤레의 운동화를 번갈아 신게 되지만 엄마 아빠한테 들리지 않고, 학교에도 지각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아슬아슬한 달리기를 이어간다. 어느 날, 어린이 마라톤 대회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알리'는 '자라'에게 1등도 2등도 아니라 기필코 3등을 차지해서 새 운동화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고 대회에 참가한다.



12일

삼손과 데릴라 (Samson And Delilah, 1949)

감독 : 세실 B. 드밀

주연 : 레자 나지, 아미르 파로크 하스미안, 바하레 세디키

상영시간 : 2시간 11분 등급 : 12세관람가

성경에 나오는 괴력의 사나이 삼손은 젊은 날엔 방향하며 자란다. 그는 유대민족의 청년이지만, 이방인인 블레셋족의 아름다운 처녀 세마다와 결혼하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그녀의 친척들이 공격해오는 와중에 그녀는 살해당하고 만다. 삼손은 복수를 위해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족을 닥치는 대로 죽인다. 죽은 세마다의 여동생인 데릴라는 삼손이 지닌 괴력을 탐지하기 위해 그와 결혼한다. 삼손은 아름답고 변덕스러운 데릴라에게 빼졌지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를 실천에 옮긴 블레셋족의 낭패를 즐겁게 구경하는 삼손. 하지만 데릴라는 그를 구슬려서 결국 긴 머리칼이 힘의 원천임을 알아내고 머리칼을 자른다.



메리 포핀스 (Mary Poppins, 1964)

(상) 19일

(하) 26일



감독 : 로버트 스티븐슨

주연 : 줄리 앤드류스, 딕 반 다이크, 데이비드 톰린슨

상영시간 : 2시간 20분 등급 : 전체관람가

1910년의 런던. 중절모를 눌러쓴 신사들과 우아한 나들이 차림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는 굴뚝 청소부 버트를 따라가다 보면, 은행가 뱅크스 가족이 살고 있는 체리트리가(街) 17번지에 다다르게 된다. 엄격하고 빈틈없는 조지 뱅크스와 언제나 바쁜 그의 아내 미세스 뱅크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쑥꾸러기 제인과 마이클이 함께 살고 있다. 오늘도 뱅크스의 집에서는 더 이상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며 유모가 짐을 싸고 나간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뱅크스씨 내외는 확실히 버릇을 가르칠 수 있는 유모를 찾지만, 자신들과 즐겁게 놀아줄 유모를 원하는 제인과 마이클의 소망은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을 타고 날아가 메리 포핀스에게 전달된다.



5월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화를...



5월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진다. 부모자녀, 형제자매, 친지들과 믿음의 영화 한 편을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은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일 것이다.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이화여대 내 ECC 삼성홀(개막식 및 개막작 상영)과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보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영화들을 상영한다. 16회를 맞는 올해 영화제 주제는 '미션'. 개막작 '하나님과의 인터뷰(An Interview with God)'를 비롯해 모두 30편을 상영한다. 이 가운데 세계에서 첫 개봉하는 월드프리미어 3편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15편이다. 이들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를 소개한다.

애니메이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감독 로버트 페르난데스, 2019년 작, 108분

| 5월 11일 17:00 | 5월 12일 15:50 - 2회 상영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현대화하여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신앙의 여정을 우의적으로 담은 이 고전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파괴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숏한 어려움과 위험과 방해를 마주하면서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따라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를 그려낸다.



아이엠 호프맨

감독 나현태, 2017년 작, 77분

| 5월 10일 17:00 - 1회 상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최대의 빈민가 ‘언동마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Hope)’ 학교를 세운 임만호 교장선생님과 아이들 이야기다. 아이들에게는 책도, 장난감도, 공부도, 학교도 없다. 꿈도 없다.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다. 선교사인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은 진정한 인생의 학교를 만든다. 시련이 왜 없으랴. 교장선생님은 파킨슨병을 앓게 되고, 아들마저 잃는다. 하지만 누구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남도의 백합화

감독 권순도 2009년 작 42분

| 5월 11일 19:00 - 1회 상영

자연의 시간을 따라가는 ‘솔로시티’이자 한국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이름난 전남 신안군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이 있다. 여행자의 무심한 눈으로 문전도사의 기념비를 읽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다. 신사참배 거부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쉬지 않았던 문준경 전도사가 6.25 전쟁 발발 후 믿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던 것이다.

문준경(1891~1950) 전도사는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그 시대 풍습대로 열일곱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그 앞에 펼쳐진 삶은 신산했다. 우연히 이성봉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는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 18년 동안 1백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언플랜드(Unplanned)

감독 척 콘젤만, 캐리 솔로몬 2019년 작 106분

| 5월 9일 14:50 | 5월 10일 19:10 - 2회 상영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가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죄 폐기가 불러올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런 우리 현실에 깊은 울림을 던지는 영화가 ‘언플랜드(계획하지 않은)’이다. 주인공 애비는 임신한 여성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클리닉’의 최연소 센터장이다. 그녀는 2만 건이 넘는 낙태 상담에 관여했지만 한 번도 수술실에 들어가 본적은 없다. 어느 날 13주된 태아의 낙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애비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하는 일이 여성의 권리 지지가 아니라 낙태 판매라는 것을 깨닫는다.

취재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관련 정보

- 상영관 : 이화여대 ECC 삼성홀 | 신촌 필름포럼(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85-1 하늬솔빌딩 A동 지하1층)
- 관람료 : 6000원/할인 4000원(경로, 장애인, 초등학생, 20인 이상 단체)
-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 <http://www.siaff.kr> 02-363-2537



하나님의 선물

나는 가까운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적이 없다.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사실 그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에 대한 죽음은 더욱욱 말이다.

『뜻밖의 선물』(2008년 홍성사 펴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홍석환 목사가 사랑하는 아들 현택이의 갑작스러운 뼈암 선고 후 8개월 간의 투병과 죽음을 경험하며 인간으로서 느꼈던 감정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처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의사로부터 아들 현택이의 뼈암 진단과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런 일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부정하고 분노했다. 산란한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안 되기도 했고, 기도할 때면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며 기도했다. “하늘이여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는 그만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목사님의 간절함과 눈물이 글을 읽는 나를 울컥하게 했다. 자식의 죽음을 대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아들의 모습은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했다. 아들 현택은 홍 목사에게 “아빠,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여한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동생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이예요. 이것이 못내 가슴 아파서 떠나기 힘들어요.” 그는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매 시간 내가 견딜 수 없는 무력감과 마음 속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수도 없이 기도 드린다.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 볼 것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지만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나를 쓰실 것이라 믿는다.” 자신의 삶과 죽음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는 만 16세의 고백은 그보다 몇 십 년을 더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



이혜연 성도
강동·송파교구

남겨진 가족들도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동생 현지는 오빠가 남긴 글과 음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오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오빠는 내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여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가 있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최선의 것이라 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특별한 것 없는 하루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축복이며 특별한 순간입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특별한 복일진대 충분히 누리며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과 사물을 만나게 하시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은 하나님의 최선을 봅니다.” 어린 동생은 오빠의 죽음이라는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고 있었다.

아버지 홍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특별한 것 없는 하루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축복이며 특별한 순간입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특별한 복일진대 충분히 누리며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과 사물을 만나게 하시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 주신 사람들이요, 나에게 좀 더 많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일들 일 터이니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겁을 먹기보다 하나님이 무슨 일로, 또 어떤 사람으로 놀라운 복을 주시려나 기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그분이 만드시는 흐름 속에 저를 맡기고 믿음으로 가렵니다.” 홍 목사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주님의 종이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졌던 욕심과 비교, 허영에서 자신을 흔들며 깨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스바냐 3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이다.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면 예상치 못했던 그 무엇이기
에 내 기대보다 훨씬 좋은 어떤 것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
하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 그것에 실망
할 때도 심지어는 불평할 때도 많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이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쓰는 것임을 알
면서도 말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좋고 싶
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의 오늘은
홍 목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날을 충분히
누리며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남**

.....
한권의 묵상 코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youngnak-hb@daum.net

요한, 예수 가까이 머문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요한도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일하던 “동업자” (눅 5:10)로서 그 일을 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다.

복음서에는 이 네 사람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 우선, 예수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물을 때 네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막 13:3-4). 다음, 요한과 야고보 형제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이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부탁할 때가 그것이다(막 10:35).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와 함께하는 장면들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막 5:37; 눅 8:51),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마 17:1; 막 9:2; 눅 9:28), 그리고 체포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요한과 베드로의 동행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앞서 보낸 두 사람이 그들이었다.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체포 후 심문을 당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갔고(요 18:15-16), 예수의 시신을 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했으며(요 20:2-8), 성령의 강림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행

3:1-6; 4:13-14; 8:14). 한때 생계를 위한 동업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 동고동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중 예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요한이었다.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13:23)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예수 가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특히 예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고 그것을 본 요한이 예수께 다시 “누구이니이까”라고 묻는 장면은 더욱 그렇다.

그가 쓴 복음서의 1장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표현이 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삼위일체의 두 위격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이라는 표현으로 두 위격의 하나됨을 표현했는데, 이 하나됨의 신비를 선명하게 그려내는 표현이 “품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 종종 그의 품에 기댄 요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표현이 아닐까? **만남**

예수 부활의 기쁨과 영혼구원의 소망으로!

2019 전교인 전도주일을 겸해 드린 부활주일 예배



1부에서 5부에 걸친 예배 시간마다 예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고, 베다니 광장에 설치된 교구별 부스에는 반가운 환영의 인사들이 오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아 4월 19일(주일) 주일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러졌다. 2019 전교인 전도주일 새가족예배를 겸해 드린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빌 3:5~14) 제하의 설교를 통해 “부활신앙의 참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자”고 역설하면서 전도주일을 통해 초청받은 분들을 향해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활주일을 맞아 각급 교회학교 예배시간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베다니홀에서 부활절 음악회 ‘주 하나님 크시도다’가 호산나찬양대 주관으로 열리는 등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한 전교인 전도주일

지난 3월 31일(주일)부터 진행된 ‘2019 영락 전교인 전도일정’을 마무리하는 전교인 전도주일을 맞아 교회에 초청된 전도대상자들을 환영하는 행사들이 예배 시간과



베다니광장의 교구별 부스에서 진행됐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초청받은 분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었고 교구별 부스에서는 교역자와의 만남의 시간과 함께 축하 선물과 간식을 나누며 따스한 교제의 시간이 종일 이어졌다. 이번에 초청을 받은 전도대상자들은 집중 심방과 새가족부 5주 교육(생명 기르기) 과정을 거친 후 신앙성장반과 제자양육훈련부가 연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다. 한편 전도부 집계 결과 이번 전도주일에 교회에 출석한 전도대상자들은 210여 명으로 집계됐다.

취재 김경옥 기자·장덕진 편집위원 사진 박흥기 기자

‘십자가로 가까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4월 20일(토)까지 매일 새벽 6시 본당에서 열렸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김운성 목사는 예수님의 가상철언을 중심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23:34)’,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6~27)’,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내가 목마르다(요19:28)’,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선포했다. 김운성 목사는 새벽기도회 설교를 통해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같이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기원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생방송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같은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성금요일예배와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맞아 4월 19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는 목양부가 주최하고 선교부 문화선교가 주관한 가운데 성금요일예배가 드려졌다. 말씀 및 기도회,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 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다 이루었다”(요 19:30) 제하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감사하며 뜨겁게 고백하자”고 전했다.



이어서 문화선교부 뮤지컬팀 ‘위트니스’가 준비한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연출 박준영, 극본 유혜정) 공연이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서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위트니스 팀원들은 성금요일 공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습에 매달려왔다. 특히 출연 배우들의 열연과 더불어 본당 강단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는 탁월한 무대 연출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나라사랑의 씨앗이 된 복음’을 주제로 열려 - 한경직목사기념상 수상자로 주바라기선교회, 김건철 장로 선정



하재호 목사



김건철 장로

한경직 목사 19주기를 맞아 4월 19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나라사랑의 씨앗이 된 복음’이란 주제로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가 열렸다. 19일(금) 오후 2시 영락교회공원묘원(경기도 남양주 소재)에서 성묘예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기념주간 행사는 26일(금) 오후 1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학교)와 이혜정 교수(영남신학대학교)가 강사로 나선 기념강연회, 28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드려진 기념예식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외부 전문인사 5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9 한경직목사기념상’ 공동 수상자로 주바라기선교회(대표 하재호 목사)와 김건철 장로(동송교회 원로)를 선정했다. 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바라기선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청소년 선교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고, 한국장로신문 발행인을 역임한 김건철 장로는 선교와 교육 사업을 위해 평생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기념상 시상식은 28일 오후 기념예식 때 함께 진행됐다.

취재 장덕진 기획편집위원

한경직 목사 19주기 성묘예식

한경직 목사 19주기 성묘예식이 지난 4월 19일(금)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영락교회공원묘원 내 고인의 묘소에서 열렸다. 이날 유가족과 성도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연구목사인 김응신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성묘예



식은 김규홍 은퇴장로의 기도와 교역자 일동의 특송이 있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운성 목사는 ‘물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한경직 목사님의 남겨주신 신앙유산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다음세대들에게도 잘 이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정영근 장로가 금년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관련 광고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후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성묘예식을 마쳤다. 한편 지난 23일(화)부터 30일(화)까지 역사자료실 주최로 베다니광장에서 ‘한경직 목사 기념전시회’가 열렸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한경직 목사 우거처, 4월부터 성도들에게 개방



‘우거처(寓居處), 잠시 몸을 붙여 사는 곳.’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위치한 한경직 목사 우거처는 한경직 목사가 은퇴 후 만 27년을 기거하시던 곳으로, 한경직 목사는 ‘우거처’라는 이름을 직접 지으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 한경직 목사의 큰 업적들과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는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그의 내면과 기도의 삶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우거처는 침묵을 통해 한경직 목사의 삶과 사역이 열매를 맺고, 기도 가운데 그의 영적 여정이 완성된 숨겨진 성지다.

이러한 기도의 영적 공간이 환경정비 사업을 마치고 4월부터 성도들에게도 개방됐다. 이번에 개방된 30석 규모 예배실인 팔복재(좌측사진)는 경건한 분위기의 예배 및 기도회 공간으로 사용되며 친목모임은 불가하다. 별도의 이용비용은 없다. 기도 및 친교모임을 위한 공간인 쉼터 로템(우측사진)은 숙박도 가능하다(최대 8인, 비용 6~8만원). 이번 우거처 개방이 성도들에게 기도와 청빈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신 한경직 목사의 삶과 정신의 참 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된다. 장소사용 문의는 영락수련원(☎ 031-743-6537)

제공 영락수련원

박광준 장로, 송실대 이사장에 선임

박광준 장로(사진)가 송실대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송실대는 지난 3월 25일(월)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장로를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본 교회 은퇴장로인 박광준 신임 이사장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김삼환 목사가 송실대 이사장 직을 사임한 이후 이사장 직 무대행을 맡아왔다. 박광준 이사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까지다.



‘생명을 낳는 교사, 다음세대기도회’, 교육부 주관으로 열려



교육부(부장 이영철 장로)가 주관하는 ‘생명을 낳는 교사, 다음세대기도회’가 지난 3월 17일(주일)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사명의 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 영락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백성우 목사(교육전담)가 ‘예베소 교회, 요한의 사역(요한1서 1:1-3)’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교육부 산하 전 부서의 교사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 땅의 다음세대를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 주관으로 3월부터 시작된 다음세대기도회는 총 7회(상반기 4회: 3월~6월, 하반기 3회: 9월~11월)에 걸쳐 셋째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학교에서 7년 이상 봉사한 교사 중 ‘교사재교육 대상자’들은 기도회 6회 출석과 각 회차별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사재교육과정 수료로 인정받는다. 한편 4월 21일(주일)에 드림홀에서 열린 두 번째 기도회에서는 김효숙 장신대 교수(교육공학)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학생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북한선교부, 2019 제1차 영락포럼 개최

북한선교부(부장 홍영남 장로)가 주관하는 ‘2019 영락포럼’의 제1차 포럼이 지난 3월 24일(주일) 오후 1시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자유를 찾아 목발을 짚고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민’으로 알려진 지성호 나우



(NAUH)대표가 강사로 나서 ‘북한 영혼들을 위한 나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작년 1월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을 받아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던 지성호 대표는 이날 90여 분에 걸친 강연을 통해 현재 북한 상황과 북한 인권개선 및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 역설했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시사적 현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북한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알리며, 북한선교 관련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도록 돕고자 열리는 ‘2019 영락포럼’은 앞으로 6월과 9월에 두 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생명을 낳아 기르는 여전도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열려



벧의 심정으로 헌신하며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아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2부 특강에서는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정보보호학)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신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사진). 김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 가운데 놓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 2019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 펼쳐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남진 장로)은 지난 3월 31일(주일) 후원자모집을 위한 ‘2019 어깨동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 마당에서 진행된 행사를 통해 신규 후원자 90명, 증액 후원자 12명, 재가입 후원자 15명 등 총 117명이 영락사회복지재단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2018년 ‘나눔 주인공’이었던 후원자들의 사진을 홍보판



으로 제작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재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은 후원자를 비롯하여 굿은 날씨 속에도 접수 부스에 찾아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득 채운 저금통을 건네는 등 정성어린 손길들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저녁 찬양예배는 영락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로 드려져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서동희 권사, 바이블 도자예술관 특별전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도예 작품만을 40여 년 동안 제작해 온 도예가 서동희 은퇴권사(성동·광진교구, 건국대 도자공예전공 명예교수)가 자신의 최신작들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독특한 창작기법과 기독교적 영성을 투영한 작품세계로 미국과 독일 등 유수의 도예 전문지에 소개되며, 해외에서도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서 권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 ‘쓴 물에서 단 물로’를 비롯해 ‘금향로’와 ‘기름 백 말’ 등 최신작 다수를 공개했다.



특히 신작 ‘쓴 물에서 단 물로’(사진)는 출애굽기 15:22~25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으로 미국 도예전문지 「세라믹스 먼슬리(Ceramics Monthly)」가 ‘익스포저(Exposure)’에 2019년도 작품으로 선정했다. 서 권사의 특별전은 5월 20일까지 서울 광진구 바이블 도자예술관(건대입구역 5번 출구 더샵 스타시티 C-3304)에서 열린다.

영락포토 13차 아카데미 개강안내 -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촬영 및 편집

일정: 5/25~7/6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봉사관 401호

강사: 김완모 사진작가(DSLR 사진특강 저자)

수강료: 40,000원 준비물: 스마트폰(충전기, 메모리 백업용 데이터 코드)

교육일정	강의내용
1주차(5/25)	스마트 폰 사진 잘 찍기
2주차(6/1)	사진구도와 연출법
3주차(6/8)	촬영 팁(Tip), 보조장비 활용법
4주차(6/15)	후보정 어플리케이션, 스냅시드(Snapseed) 활용법
5주차(6/22)	동영상 촬영의 테크닉
6주차(6/29)	프레임과 구도 잡는 법
7주차(7/6)	동영상 편집의 이해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4월호) 9면에 실린 기도대각성 기사 중 여덟 번째 줄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 시 남한산성’으로, 24면에 실린 이인성 교수 원고 중 끝에서 두 번째 줄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재건’은 ‘영락교회 구내 임시 교사에서 재건’으로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2월 17일~4월 14일)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월 17일	황갑주	90	888
	김정민	90	888
	박민수	70	888
2월 24일	강신옥	14	037
	지소람	90	888
3월 10일	박호연	16	015
	이예섭	09	028
	김숙자	02	055
	박상희	07	046
	김은자	11	007
	이주희	03	047
	이선희	03	047
	김진희	14	009
	홍원기	10	002
	김세영	10	002
	김도운	05	001
	김민주	10	030
3월 17일	문영복	04	024
	안영순	10	070
	배성호	04	082
	서은주	05	061
	황성자	04	014
	이동훈	10	033
	배윤호	09	033
	강유선	04	014
	설순우	17	004
	이정은	10	033
	전우기	17	007
	박지원	17	004
	윤주하	06	004
	오현서	02	074
	윤하루	01	003
	김시온	11	031
	박소민	03	015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3월 17일	홍세윤	14	022
	윤정	12	042
	임환재	04	057
3월 24일	조영숙	13	019
	유희정	04	057
	이영미	07	003
	주영진	04	005
	허선현	04	005
	김동욱	06	031
	이수진	08	015
	우제영	16	063
	이재희	14	056
	김소은	13	041
	김이든	13	041
	채수안	06	074
3월 31일	김옥수	11	022
	이미자	11	056
	김란주	04	056
	박지은	04	082
	오대성	06	056
	유유리	06	056
	이혁	10	000
	송병은	17	030
	송진아	10	000
	박혜연	09	054
	박상미	04	056
	강문희	07	061
	서영진	05	028
	한광옥	04	082
	함국성	01	044
	김한솔	04	040
	김채은	04	040
	최경준	16	008
	이지후	09	011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3월 31일	송제인	18	021
4월 5일	심지연	90	888
4월 7일	김광수	16	000
	이귀인	16	000
	김영임	09	047
	유인순	15	024
	김치흥	15	024
	전용태	08	000
	김명길	16	000
	최인용	01	000
	정승혜	04	065
	신중호	08	000
	이수진	08	000
	윤대현	04	065
	백승혁	05	058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4월 7일	박민정	12	000
	이나래	11	053
	오세미	04	075
	오하진	06	030
	홍석현	13	015
	김예진	13	041
	김다운	05	001
	양승헌	05	025
4월 9일	김재이	08	013
4월 14일	김은우	07	063
	구하준	03	048
	김하경	04	067
	김이안	02	038
	황시운	09	004

5월의 토요일음악회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선교관

11일	이용주 성가의 밤 (성가곡 합창 연주회)
18일	일본 선교를 위한 SOL 선교음악회
25일	서울고 OB중창단 '늘소리'와 함께 하는 노래

토요일음악회는 크리스천 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연주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울러 음악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5/4일은 공연 일정이 없습니다.





편집장 레터

따뜻한 5월 어느 날 젊은 남녀가 하나님과 여러 어른들을 모신 가운데 웨딩마치에 맞추어 주례자 앞으로 나아간다. 식순에 따라 절차를 마친 다음 주례자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들이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 새 가정에는 새로운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이다. 재롱떠는 아이를 바라볼 때 열 달 동안 배 안에 넣고 겪은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조각가가 그가 만든 작품을 계속해서 만지고 다듬듯이, 부모는 그들의 아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온전한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교육시킨다. 부모는 그것을 그들의 도리라고 여겨 모든 고달픔을 잊고 기쁨으로 자녀를 키운다.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산도 배움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산과 배움을 빛나게 하는 밑거름은 신앙이다. 신앙이 없는 재산과 배움은 모순 속에서 그의 달란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장 9절). 이 진리를 안다면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많은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앎은뱅이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걸으라”고 했다. 인생의 절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만 해결된다.

가족주일, 교육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영락청년 선교 비전이 중첩되어 있는 5월, 복음의 습득을 역설함은 한치의 오류도 없을 것이다. “복음과의 『만남』은 『맛남』의 체험이다.”

- 편집장 이동훈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4월호 정답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숨은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눈부시게 맑은 5월 어느 날, 소담이네 가족은 마당에 돛자리를 깔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가 들려주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답니다. ^^ 아래에는 9개의 그림이 숨어있어요. 소담이네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몽, 빨대, 말발굽, 연필, 바늘, 종이비행기, 왕관, 나비, 통조림)



목회력

5月

3일(금)	연합권찰공부
4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5일(주일)	어린이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원포인트교육주간
12일(주일)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전세대예배, 제직회, 원포인트교육주간
13일(월)~15일(수)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19일(주일)	교육주일, 원포인트교육주간
24일(금)	심방준비회
24일(금)~26일(주일)	영락청년선교비전
25일(토)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26일(주일)	새가족환영회,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교육주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생명을 낳아 기르는 남선교회

2019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9시~16시

장 소 : 대광고등학교

주 최 : 선교부

주 관 : 1, 2, 3, 4남선교회

후 원 : 1, 2, 3, 4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의료선교부



교회랑우리랑 날마다쑹쑹

딤후 2:1~2



제 25 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2019.5.4 토 오전 10:00 ~ 오후 3:30

📍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대상 4세 ~ 7세

접수 50주년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프랑스 할스(Frans Hals)
유화, 69.5cm×55cm,
1625년 경

성 요한

Saint John the Evangelist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황금기의 대표적 화가 중의 한 사람인 프랑스 할스(Frans Hals)의 그림이다. 사도 요한을 그린 이 그림에는 그림의 주인공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것을 가리키는 몇 가지 힌트가 보인다. 우선, 그림의 주인공이 하늘을 보면서 글을 쓰는 것은 계시를 받아 쓰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의 겹옷의 색이 적색인 것은 그가 요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수의 주변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예를 들어, 조토의 『그리스도예의 애도』, 루벤스의 『십자가로부터 내림』 등)에서 마리아의 옷은 감청색(lapislazuli)이며 사도 요한은 적색이다. 물론, 요한의 옷만이 적색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힌트, 즉 그의 옆에 있는 독수리는 그가 요한임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물이다. 복음서는 각각의 상징물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람, 마가복음은 사자, 누가복음은 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이기 때문이다.